봄날은 간다

‘한 시간을 사랑하고, 한 시간을 괴로워한다. 영화도. 우리도.’ 상우와 은수의 이야기를 보고 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논평 중 하나였다. 우리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들이 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둘의 관계는 사실 갑자기 끓어오르는 물과 같았다. 그 둘은 속절없이 사랑의 파도에 헤매지만 은수는 상우와는 다르게 이미 사랑으로는 결혼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내내 은수는 사랑은 하지만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내보인다. 조금만 깊어지려 하면 밀어내며 짜증내는 은수와 묵묵히 깊게 사랑하는 상우의 사이에서 헤어짐을 고하는 것은 늘 은수였다. 하지만 은수와 상우의 사이의 마지막은 상우가 은수를 놓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이 영화를 조금 깊게 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상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고 술에 취해 친구의 택시를 타면 멀리까지 운전해주는 친구, 상우의 상처를 이해하고 조언해주시는 할머니, 그리고 대가족들. 하지만 그에 반해 은수는 늘 상우 한 명 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직장 동료와 말을 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고 오롯이 상우와 있을 때가 많다. 즉 은수는 혼자라는 의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수는 상우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우에게 물들어갔다. 하지만 상우는 결국 상처를 내딛고 은수에게로 향하는 문을 닫아버린다. 사랑의 끝을 고하는 시기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날이었기 때문에 봄날은 간다라는 문장이 영화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영화의 끝에 노래가 하나 흘러나오는데 그 노래가 바로 봄날은 간다라는 제목의 노래이다. 이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봄날은 가네 무심히도 꽃잎은 지네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들’ 이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데 이는 두 사람의 이별 장면과 무척 잘 어울려 떨어진다. 끝으로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봄날은 간다라는 이 영화의 계절적인 배경은 계속 겨울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봄으로 끝맺기 때문에 그 특정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봄날은 간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봄날은 간다는 말이 과연 이 영화의 제목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가에 대해 묻고 싶다.